

민주 “주권자 국민이 내란 정권에 불호령 심판 내린 것”

李 과반 득표 출구조사에 환호
“와” 탄성 지르며 기립해 박수
박찬대 “민생·경제회복 열망 표출”
“준엄한 명령 받들기 위해 혼신”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긴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내란 정권에 대해 불호령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는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은 시간부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주요 당직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20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에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 공존했다.

오후 8시 이 후보가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황실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10%포인트(p) 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로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앞선다는 조사 결과에 참석자들은 모두 “와!”하고 탄성을 터뜨렸다.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당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올렸고,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고, 일부 참석자들과 포옹하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다.

이어진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상황실은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KBS에 출연해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예측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당

선 유력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심판이 무엇인지,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경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첫 번째로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투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둘째로 윤석열 정권 3년간 파탄났던 민생과 폭망한 경제를 회복하라는 열망이 이 후보에게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이 후보와 함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이 후보가 전해온 메시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따로 들은 것은 없다. 곧 이 후보가 직접 말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힘 “상당히 많은 차이 아쉽다” 실망감 역력

상황실 적막감…곳곳서 한숨 내뿜어
나경원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난 3일 오후 8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무거운 적막감에 빠져들었다.

출구조사 결과 공개 전까지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오후 8시 정각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오차범위를 넘는 12.4%포인트 차로 뒤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개표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최근 들어 여론 조사상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본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까지 ‘골든 크로스’·‘역전’ 등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끝내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받아 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KBS 인터뷰

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열세나 저희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며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자랑스러워… 지방선거 매진”

개혁신당의 대선 개표상황실은 3일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적막감에 휩싸였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상황실을 차린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 등을 통해 뒷심을 발휘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7.7%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상황실에 속속 모이기 시작한 개혁신당 지도부와 당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전하람 상임선대위원장, 이주영·전성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따금 컷속말하며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했다.

기대치를 밀도는 결과가 발표되자 천 상임선대위원장은 실망한 듯 순간 침뚫은 표정으로 몸을 뒤로 뉘어 화면을 지켜봤다. 이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입술을 깨물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천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며 “사표 방지심리와 관행적 투표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도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원칙 있는 승부와 멋진 완주를 본 분들은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이끌어갈 차기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데에 동의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에 지금부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2025 신안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2025년 6월10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인근 1004섬 분재공원 해안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지만 문명의 발달, 인구증가 등으로 해양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살아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바다살리기에 적극 관심과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주최



전라남도



신안군



전남일보



•주관 전일엔컬스